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Program for Immigrant Women's Husbands

대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 교 수 김 오 남*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김 경 신
조 교 수 이 정 화
Dept. of Social Welfare, Daebul Univ.
Assistant Professor : Kim, Oh-Nam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Kyeong-Shin
Assistant Professor : Lee, Jung-Hw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evaulate 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for immigrant women's husbands. They who play important role have much more resources than wifes in Korean society and establish a happier home through trying to adapt marital relationship. It needs to escape focusing on only immigrant education and program and have to extend to immigrants' family members including husband. The program procedure was implemented for 14 immigrant women's husbands every Friday for 2 hours from Feb, 2007 to Mar, 2007. To evalutating effects of program the pre test and post test was analyzed. The program was operated by researcher, center worker and volunteer who have much practiticing experiences about immigrants. The program of sessions is perception of intermarriage, understanding of wife's country culture, open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

A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es of the increases in the area of perception of intermarriage, open communication and child rearing attitud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understanding of wife's country culture and conflict resolution of the program be modified by future social work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n order to make the program more effective.

▲주요어(Key Words) : 결혼이민자 남편(immigrant women's husbands), 부부관계향상프로그램(improvement of marital relationship program)

* 주 저 자 : 김오남 (E-mail : onk@mail.daebul.ac.kr)

Ⅰ. 서론

본 연구는 국제결혼 부부가 바람직한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결혼이민자만을 주요한 대상으로 한 연구와 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족, 특히 남편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조속한 적응을 유도하고 부부관계 향상 및 가족전체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전체 국제결혼 사례 중 외국인여성과 한국남성간의 결혼은 76.1%를 차지하며, 국제결혼이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39,690건, 총 결혼 건수의 11.9%에 이르렀다(통계청, 2007). 또한 이혼통계자료에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6,280건으로 전년보다 46.8%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외국인 남편과의 이혼은 2,270건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를 보인 반면 2006년 외국인 처와의 이혼건수는 4,010건으로 전년보다 64.1%가 증가하여 한국남성과 결혼이민자와의 결혼해체문제가 더 심각함을 보여준다(통계청, 2007). 보건복지부(2005)조사에서도 국제결혼이민자 가운데 남편과 별거상태에 있거나 이혼한 경우가 전체의 12%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과 적응과 함께 결혼해체에 대한 예방이 시급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서비스에서는 지자체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등과 상담이 이루어져왔으며 지난 2006년부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문화이해사업, 교육사업, 상담사업, 자녀지원사업, 네트워크형성,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여성가족부, 2006a).

결혼이민자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부공동체 훈련과 후견인제도가 이루어졌으며, 여성가족부(2005)에서는 결혼이민자 가족 부부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가족을 3년 미만과 3년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고 농촌과 도시로 구분하여 의사소통, 문화적응, 갈등해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발,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시가 일회성이거나 단기간의 개입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계에서는, 한일국제가정을 대상으로 한 부부교육프로그램(윤연숙, 2002)과 문화적 요소가 가미된 필리핀출신 결혼이민여성 부부를 위한 부부적응프로그램(이은주, 2007)등이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도 기존 한국부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거나 결혼이민자 가족 전체를 포함하지 못하고 결혼이민자 일부가족을 위한 편중된 내용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지원 분야에서는 전반적인 복지지원 서비스 강화이외에 언어소통이 가능한 교육과 상담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들의 적극적 시행이 강조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구체적으로 부부관계강화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관계 강화프로그램 등을 확대 실시하여야 하며 나아가 남편이나 시부모를 비롯한 국제결혼가족의 다른 가족원들이 결혼이민자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전라남도, 2006). 따라서 결혼이민자 가족의 전반적인 원만한 적응을 위해 다른 가족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결혼이민자 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프로그램 실시가 매우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부부 뿐만 아니라 일반 부부를 포함한 어느 결혼에서나 결혼에 대한 현실적 기대, 서로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부역할평등, 의사소통 등이 부부관계나 결혼적응에 있어 본질적으로 공통되는(이은주, 2007) 특성이 있다. 동시에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독특한 어려움도 간과해서는 안되며 국제결혼부부를 돕는 실천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으로부터 파생되는 독특한 관심사에 민감하고(Negy & Snyder, 2000), 부부 각자의 세계관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Ibrahim & Schroeger, 1990)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 국제결혼부부에게는 일반부부와는 다른 문화차이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부적응이 필수적이며, 특히 부부가 적응하는데 결혼이민자의 노력과 변화와 함께 남편의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이 강조되고 남편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남편에 대한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프로그램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지적사항이다(임경혜, 2004; 보건복지부, 2005; 안현주, 2006).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자가족의 문제점과 개입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여러 매체와 연구 등에서 제시되어 왔으며 결혼이민자에 대한 개입의 중요성과 함께 남편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왔다. 이는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부부적응과 가족안에서의 적응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대한 핵심적 역할은 다름아닌 결혼이민자의 배우자인 남편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남편에게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게 하고 한국과 아내나라와의 문화차이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방법과 갈등해결방법을 습득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자녀양육태도를 통해 아버지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남편을 위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Ⅱ. 선행연구고찰

1. 결혼이민자부부의 특성

결혼이민자 부부갈등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남편과의 성격차이, 생활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특히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는 결혼이민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 중 하나로 즉, 남편들이 아내로 대우하기보다는 지시적으로 말하고, 한국여자와는 다르게 취급하는 점에 대해 결혼이민자들은 불만스러워하며 또한 결혼이민자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무시한다고 지각하였다. 윤형숙(2004)은 결혼이민자들이 가부장적 가족질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과 음식문화, 부부위계에 대한 생각, 자녀의 소속과 양육방식, 친족과의 관계 등의 문화적 차이, 권위적인 남편의 태도, 남편의 술과 담배, 도박, 자녀양육방식, 시부모의 간섭이나 남편의 시부모에 대한 의존 등에서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

국제결혼한 부부는 대부분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배우자와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는 96.3%가 한국어(여성가족부, 2006b)를 사용하여 결혼이민자들은 언어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가장 높게 지각한다고 하였다(이금연, 2003;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03). 이러한 의사소통의 장애와 어려움은 부부갈등의 원인이자 양상으로 언급되고 있다(윤형숙, 2004; 김오남, 2006a). 언어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대화조차 어렵기 때문에 부부간 상호이해와 친밀감의 교류는 더 어렵게 되고 이는 더 심각한 부부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한국남성과 일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대한 연구(이규삼, 1999)에서는 부부간의 대화, 문제해결기술, 부정적 대화나 부정적 문제해결의 유형 등이 부부갈등요인으로 포함되었는데 한국남편은 부정적 대화나 부정적 문제해결유형을 빈번히 나타낸 반면, 정서적 의사소통, 공유시간만족, 문제해결에 대한 의사소통만족 등이 낮게 나타나 부부갈등요인이 잠재되어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일본여성들은 내성적이고 정서적이며 공유시간 및 가족관계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이민자 남편들이 낯선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부인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배려하지 않아 이들은 부부갈등을 느끼며, 언어적 능숙함이 따르지 않을 때 남편은 극단적인 갈등표출의 방법으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과 사회적 고립을 통한 폭력 등을 행사한다고 밝혔다(김상임, 2004). 따라서 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문화간 결혼에서 배우자와 가족원들이 비언어적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비언어적 메시지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제안하였다(NineCurt, 1984).

결혼이민자가족의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나 부부를 각각 비교해보면, 결혼이민자들의 부부관계 만족도가 한국인배우자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으며 부부간 불화 시 이민자들의 주 상담원은 친구(33.6%)이며 이민자의 가족 및 친척(23.2%), 배우자의 가족 및 친척(20.6%)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6b).

한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제결혼한 이민자들은 31.8%가 지난 1년동안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여 언어폭력이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25.6%의 부인들은 남편이 물건을 던진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때리겠다는 위협을 받은 부인은 18.2%, 실제로 손발로 구타당한 부인은 13.0%, 세게 밀침을 당한 부인은 12.3%에 이르렀다. 또한 성과 관련하여서는 부당하게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부인이 12.0%,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받은 부인이 5.5%로 나타났다(전라남도, 2006).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다른 연구에서는, 지난 한 해 언어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31%,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10~14%이었다. 현재 별거하거나 이혼한 결혼이민자들 중 부부폭력의 경험률이 높은데 언어폭력은 70~80%, 신체적 폭력은 50%, 남편으로부터의 성행위강요는 40%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김오남(2006b)의 결혼이민자부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가 남편으로부터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리적 학대가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화정체감이 주변화태도를 보일 경우,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학대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한국남편들은 알코올중독, 폭음로 인하여 아내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경희, 2004; 양선화, 2004). 결혼이민자는 남편의 과음을 다음날 노동을 힘들게 하고 이는 수입감소와 연결된다고 하였으며 큰 문제행동으로 여기고 있었다(양선화, 2004).

경제생활 부분에서 살펴보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은 43%(보건복지부, 2005), 34%(여성가족부, 2006b)로 각각 나타났다. 소득에 대해서 '아내가 번 돈을 아내'가, '남편이 번 돈을 아내'가 관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은 가정 내에서 경제권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6b).

결혼이민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를 엄하게 키워야한다는 남편과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여성사이의 자녀양육방식차이는 부부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윤형숙, 2004), 많은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

간 자녀양육태도 불일치로 인해 부부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되었다(신경희, 2004; 보건복지부, 2005; 전만길, 2005; Durodoye, 1997). 특히 결혼이민자 중 64.3%가 자녀와 집 밖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거의 매일 대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한다가 60~70% 정도 되어 비교적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그런데 자녀와의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에 비해 자녀의 생활태도나 학교성적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 남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자녀들은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에서 상대적 열세를 경험하고, 이에 적응을 하기란 쉽지 않다(莫黎黎 · 賴佩玲, 2004; 정윤정, 2007). 또한 문화적 배경이 달라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 관념도 다를 수 있어 이러한 상황 하에서 결혼이민자는 종종 남편과 의견 충돌이 생기며, 때로는 자녀에 대해 모순적이거나 불리한 영향이 있음을 보고하기도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족에서 공통적으로 자녀를 돌보는 어려움 중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과 아동을 돌볼사람이 없는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취학연령이 된 경우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어려움이 주된 문제로 제기되었다(신경희, 2004; 보건복지부, 2005; 전만길, 2005; 하 밍 타잉, 2005; 김오남, 2006a; 여성가족부, 2006b). 베트남여성을 대상으로 한 하 밍 타잉(2005)연구에서도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면서 결혼한 24명(30%) 중에 13명은 아이들 양육문제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보통'은 10명, 그리고 단지 1명만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아이들 양육문제에 힘들어 하는 정도가 낮았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여성이 힘들어하는 주요한 내용으로 시부모와의 갈등이 지적된다(홍기혜, 2000; 윤형숙, 2004; 전만길, 2005). 보건복지부(2005)보고에서도 결혼이민자들은 시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꼽았다. 결혼이민자와 시부모와의 갈등은 결혼이민자가 유교적이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관념이 뿌리깊게 남아있는 시부모와 동거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며느리로서 의무가 강요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된다(김오남, 2006a).

이상의 결과들은 그동안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의 적응을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른 가족원 특히 가족관계의 중심에서 결혼이민자와 다른 가족원간의 관계에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남편에 관한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2. 결혼이민자부부 교육프로그램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를 필두로 다양한 정부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한국어를 비롯한 문화교육 및 상담, 찾아가는 서비스, 도우미서비스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이용실태를 보면 한국어 및 문화적응교육이 2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부 및 가족관계교육은 8.6%에 그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대다수가 결혼이민자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있다(보건복지부, 2005). 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연 1~2회 정도 실시되고 있으며(전북발전연구원, 2005), 부부교육을 받지 못한 부부도 79.8%에 이르고 있다(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2006). 따라서 언어교육과 상담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결혼이민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적극 시행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부부관계 강화프로그램이나 부모자녀관계 강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도 언급되었다(전라남도, 2006).

이와 관련하여 여성가족부(2005)가 국제결혼 부부교육프로그램을 도시와 농촌, 3년 이상과 미만으로 나누어 의사소통, 문화적응, 갈등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범실시한 바 있다. 그 이후 여성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 주도하에 결혼이민자 가족통합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남편, 시부모, 자녀에 대한 각각의 프로그램을 특화시키는 한편, 온 가족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통합프로그램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 결혼이민자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가족통합 프로그램에 관한 효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우선적으로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원만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남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시도하고자 한다.

Ⅲ. 프로그램 구성

1. 프로그램개발과정

본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2006)의 결혼이민자가족 통합프로그램의 일부인 남편용프로그램이다. 지난 2006년 결혼이민자가족 통합프로그램 중 남편프로그램을 개발한 본 연구자는 결혼이민자 관련문헌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부부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결혼이민자가족 대상 사업 및 관련 프로그램의 현황 및 실태분석과 함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사업실시기관 종사자, 관련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요구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기관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인터뷰 결과

영역	인터뷰대상	인터뷰 내용
의사소통	N시외국인 쉼터 종사자	부부 5쌍을 한달에 1회씩 부부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결혼한지 한달이내인 부부들이어서 부인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 남편들이 부인을 위한 통역원이 있었으면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내용은 주로 부부생활, 가정생활, 시부모와의 관계, 외국인 부부의 자긍심 등이었다.
문화차이 극복	N시외국인 쉼터 종사자	남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처가집 챙기기, 신부국가의 명절, 풍습, 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문화만을 신부에게 주입시키지 말고 다른 문화를 신랑이 공부하고 수용하는 부분도 필요하다.
	Y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결혼한 9쌍을 교육하고 있는데 언어이전에 적응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막와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심심하다'이다. 문화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언어습득이 이루어지기전에 결혼관계가 깨지기 쉽상이다. 때문에 처음 너무 한글교육에 치중하는 것보다 문화를 알고 적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과 문화, 관계적응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자기나라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줘서 스트레스도 풀고 향수도 달래줄 필요가 있다.
자존감회복	N시외국인 쉼터 종사자	외국인 신부남편들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사회적 낙오자, 낙인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S시 이주여성인권센터 실무자	시모나 남편이 이주여성의 나라와 문화를 무시하므로 아기와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므로 이들 가족을 위해 다중 국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중략> 이주여성에 대해 자녀, 남편, 시모가 당당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남편교육의 필요성	N시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가족대상으로 두달에 한번, 열쌍의 부부를 초대하는데 7쌍 쯤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적극적이나 불참자가 더 문제이다. 남자들에게 교육이 필요한데 이들은 나이차가 많아서 어린 신부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 남편들을 위한 생활교육, 기초소양교육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Y시 지자체 실무자	단위프로그램보다는 모든 프로그램을 연계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면 한다.
	Y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실무자	결혼이민자가족을 단순히 요보호가족으로 보는 시각이 교정되어야 하고 이들 가족이 자발적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통합적 가족생활교육이 필요하다.
	K군 결혼이민가족연대 실무자	집단상담 형태를 통해 쌓인 감정들을 드러내게 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한글, 문화적응, 취업, 보육 등이 어우러진 형태가 좋겠다.

<주> 본 내용은 결혼이민자가족 통합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로서, 남편, 시부모, 자녀관련 내용 등 가족관계 전반에 관하여 다루었다. 여기에 제시된 사항은 인터뷰 내용 중 남편관련내용만을 편집 요약한 것임.

결혼이민관련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종사자와 담당공무원들과의 인터뷰는 그들의 동의하에 미리 일정을 정하고 실시하였으며 인터뷰시 결혼이민자사업내용, 사업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앞으로의 해결방안 등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관련기관 종사자들(심층인터뷰 및 별도 3개 관련기관 방문)로부터 전반적인 결혼이민자 관련사업에 대한 평가와 교육 요구도를 수렴한 결과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정리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다음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후 자문 및 관련 연계기관의 전문가회의와 실무자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된 논의와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하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사업 및 부부교육 프로그램분석을 통해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기, 문화차이 극복하기, 양성평등실천하기, 마음이 통하는 대화나누기, 서로 이기는 갈등해결, 자녀에게 기 살려주기, 배우자에게 지속적인 사랑전달, 교육효과 검사 및 종결, 개별상담 등 총 8회로 구성되었다. 그 후 결혼이민자 남편의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차원에서 5회로 축소하라는 자문진의 제안으로 1회기와 3회기를 1회기로, 8회기가 5회기로 통합되었으며, 7회기는 삭제되었다. 또한 결혼이민자부부의 높은 연령차를 극복하는 내용에 대한 요구도 1회기에 첨가되었다.

2. 프로그램 구성안

본 프로그램의 구성안은 총 5회기로 다음과 같다.

<표 2> 1회기 : 소중한 당신과 나, 아름다운 우리

1회기 : 소중한 당신과 나, 아름다운 우리!			
목 표	1. 다문화가족의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2. 자신감 있는 나와 배우자,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한다. 3. 가족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인식한다.		
단 계	내 용	방 법	시 간
내 용	도 입	1. 친밀감 형성하기	
		1) 진행자 자기소개	5분
		2) 참가규칙 및 계약설명	5분
		3) 참가자와 우리가족 소개하기	15분
		4) 사전평가서 작성	
		5) 프로그램의 개요 소개	5분
		6) 이번 회기에 대한 소개	5분
	전 개	2. 다문화가족의 이해	
		1)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서 다문화가족	
		2) 결혼하니 이런 점들이 좋아요.	강의 1 15분
		3) 우리부부 자랑대회 갖기	활동 1 15분
		3.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자세	활동 2 15분
		1) 행복한 결혼생활이 되려면.....	
		2) 아름다운 우리를 위해 내가 할 일	강의 2 15분
			활동 3 15분
	종 결	4. 마무리	
		1) 1회기 정리	10분
		2) 2회기 안내	
		3) 과제-아내국가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오기	
준비물	강의 자료, 강의 지침서, 교재, PPT #1-8, 이름표, 사전평가지		

<표 3> 2회기 : 아내나라 문화체험

2회기 : 아내나라 문화체험			
목 표	1.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한다. 2. 한국문화와 아내국가의 문화특성을 이해한다.		
단 계	내 용	방 법	시 간
내용	도입	1. 분위기 조성	
		1) 지난회기의 내용정리와 과제 확인	5분
		2) 이번 회기에 대한 소개	5분
	전개	2. 한국문화와 아내국가의 문화이해	
		1) 각국의 문화소개에 대한 영상물 시청	영상물 15분
		2) '아내국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활동 1 15분
		3) 한국문화와 국가별 특징 및 문화관련 가족갈등	강의 1 20분
		4) 간단한 아내국가 언어 배우기	
		5) 퀴즈의 달인은 누구?	활동 2 15분
		6) 아내국가 국기 만들어 아내에게 선물하기	활동 3 15분
		3. 아내국가의 결혼과 가족 및 여성의 지위	활동 4 10분
			강의 3 10분
	종결	4. 마무리	
		1) 2회기 정리	
		2) 3회기 안내	10분
		3) 과제-아내국가언어를 표현해보기	
준비물	강의 자료, 강의 지침서, 교재, PPT #1-7, 이름표, 영상물 자료, 별책부록,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 영상물자료, 세계국기, A4용지 (여성월간지, 풀, 가위)		

<표 4> 3회기 :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3회기 : 사랑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				
목 표		1.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2. 효율적인 부부의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한다.		
단 계		내 용	방 법	시 간
내 용	도입	1. 분위기 조성 1) 지난회기의 내용정리와 과제확인 2) 이번 회기에 대한 소개		 5분 5분
	전개	2. 성숙한 의사소통과 장애요인 1) 성숙한 의사소통과 대화장애요인 2) '미안합니다' 3. 비언어적 의사소통 1) 더 많이 표현해 주세요. 2)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다. 4. 말하기와 듣기 1) 효과적인 말하기와 듣기 2) 나 전달법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3) 내 아내가 ---할 때	 강의 1 활동 1 강의 2 활동 2 강의 3 활동 3 활동 4	 15분 15분 10분 15분 10분 20분 15분
	종결	5. 마무리 1) 3회기 정리 2) 4회기 안내 3) 과제-부부십계명 작성해오기		10분
준비물		강의 자료, 강의 지침서, 교재, PPT #1-7, 이름표,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 A4용지(여성월간지, 풀, 가위)		

<표 5> 4회기 : 갈등을 풀고 앞으로 한걸음

4회기 : 갈등을 풀고 앞으로 한걸음				
목 표		1. 부부갈등의 원인들을 파악한다. 2. 부부갈등시 건강한 해결방법을 습득한다.		
단 계		내 용	방 법	시 간
내 용	도 입	1. 분위기 조성 1) 지난 회기의 내용정리와 과제확인 2) 이번 회기에 대한 소개		 5분 5분
	전 개	2. 부부갈등의 원인 1) 결혼이민자 가정의 모습 2) 부부갈등의 원인(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3) 내가 더 줄께요. 3. 갈등해결방법 1) 건강한 갈등해결방법 2) 다정한 친구처럼 연인처럼 3) 효자와 애처가 4) 소망단지	 영상물 강의 1 활동 1 강의 2 활동 2 활동 3 활동 4	 10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15분
	종 결	4. 마무리 1) 4회기 정리 2) 5회기 안내 3) 과제-아내에게 편지쓰기(영상편지)		10분
준비물		강의 자료, 강의 지침서, 교재, PPT #1-6, 이름표, 영상물자료,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 A4용지(여성월간지, 풀, 가위)		

<표 6> 5회기 :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

5회기 : 자녀에게 힘이 되는 부모				
목 표		1.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2. 구체적인 자녀양육기술을 습득한다.		
단 계		내 용	방 법	시 간
내 용	도 입	1. 분위기 조성 1) 지난 회기의 내용정리와 과제확인 2) 이번 회기에 대한 소개		 5분 5분
	전 개	2. 결혼이민자 자녀의 어려움 1)결혼이민자자녀의 어려움 2)우리 자녀는 무엇이 힘들까? 3.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1) 자녀양육태도 유형 2) 우리 부부의 자녀양육태도유형 알아보기 4. 자신감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1) 자녀의 자신감을 키워주는 방법 2) 칭찬은 자녀를 성장시킨다. 3)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4) 사랑표현은 이렇게!!	 강의 1 활동 1 강의 2 활동 2 강의 3 활동 3 강의 4 활동 4	 10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10분 15분
	종 결	5. 마무리 1) 5회기 정리 2) 전교육과정 정리 3) 사후평가서 작성 4) 수료증 수여 및 기념촬영 사진		 10분
준비물		강의 자료, 강의 지침서, 교재, PPT #1-7, 이름표, 크레파스 또는 색연필, 사후평가지, A4용지(여성월간지, 풀, 가위)		

3. 프로그램 목적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다문화가족과 문화차이를 이해하여 서로의 수용의 폭을 넓히고, 부부간의 올바른 의사소통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갈등해결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친밀한 부부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문제를 예방·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또한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을 터득하여 부모로서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부부관계를 위한 다짐과 방안모색을 통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복한 결혼이민자 가족생활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 2>에서 <표 6>은 총 5회기로 이루어진 결혼이민자 가족 남편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회기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반부 1-2회기는 서로 존중하는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단계로 국제결혼에 대한 긍정적 마음을 남편들에게 심어주고, 본인과 아내나라와의 서로 다른 문화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회기에는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와 배우자,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족 내 남편과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게 하였다<표 2>. 특히 다문화가족이 다양한 가족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고 남편들 스스로 자신감있는 결혼생활을 유도하도록 격려하고 국제결혼을 통해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2회기에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며 한국문화와 아내국가의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표 3>.

3~4회기에는 친밀한 부부관계를 지향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부부간 긍정적인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3회기에는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율적인 부부의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하게 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표 4>. 특히 부부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의사소통임을 강조하였다. 4회기에는 부부갈등의 다양한 원인들을 파악하고 부부갈등 시 건강한 해결방법을 습득하게 하였다<표 5>.

마지막으로 5회기는 행복한 결혼생활, 가족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자녀양육방법을 터득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표 6>. 이 단계에서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깨닫고 구체적인 자녀양육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Ⅳ. 연구방법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의 남편을 대상으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프로그램에서 다룬 남편들의 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나라 문화인식, 의사소통, 부부갈등해결, 자녀교육태도에 대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종결하면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전후시험통제집단디자인(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연구대상자는 Y군과 K군에 거주하는 결혼한 지 3년 미만인 결혼이민자남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모집 및 프로그램 실시과정은 2007년 1월 Y군과 K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센터를 이용한 결혼이민자 남편 가운데 무작위적 방법으로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4명을 모집하였다.

프로그램은 2007년 2월과 3월 2개월 동안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매회 2시간 동안 총 5회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실시 장소는 Y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교육실이었으며 프로그램참여자인 실험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4명을 프로그램 전과 후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총 5회 프로그램 중 실험집단 15명 가운데 1명이 결석으로 인해 최종분석에서 탈락되었다. 따라서 최종분석에는 실험집단 14명, 통제집단 14명 총 28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프로그램운영

프로그램은 1명의 주 진행자와 1명의 센터 직원, 그리고 1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었다. 주진행자는 본 연구자이며 사회복지학 석사 센터직원과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2년 이상 결혼이민자가족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다.

프로그램실시하기 전에 프로그램진행에 참여할 대상자들에게 프로그램의 개발동기, 목적,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진행자들과 본 연구자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각 회기의 내용, 실행방법, 준비물 등을 숙지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은 주 진행자의 강의와 남편들의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회기마다 남편들 간의 상호작용과 주진행자와 남편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회기의 목표를 설명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의 도입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과 과제확인, 이번 회기에서 다룰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제 1회기에서는 진행자 소개, 참가자와 가족소개, 규칙,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소개, 사전검사 등이 행해졌다. 셋째, 각 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과 강의로 이루어졌다. 이때 각 모임은 강의와 참가자들의 활동중심으로 진행하고 활동이 끝나면 교육자가 강의 내용을 정리하하여 그 효과를 높였다. 넷째, 종결부분에서는 그날 회기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 회기의 과제를 주고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각 모임의 과제는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거나 다음 회기에서 다룰 내용과 연관된 과제를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에는 교육자용 지도자용 지침서와 참가자용 교재(workbook), 사전사후 평가지, 영상자료, 이름표, PPT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3. 측정도구

결혼이민자남편의 부부관계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의 측정도구로 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나라 문화인식, 부부간 긍정적 의사소통방식, 부부갈등해결방식, 자녀양육태도 등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교육내용의 평가에는 강의내용의 적절성, 앞으로의 생활에 대한 도움정도,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정도, 교육기대달성정도, 강의 몰입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1) 결혼에 대한 인식

결혼이민자남편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김미숙(1987), 김혜선 · 신양재(1988)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참조하여 '결혼과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잘 안다', '아내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측정하였으며 총 3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756로 나타났다.

2) 아내나라 문화인식

여성가족부(2005)의 국제결혼 부부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아내나라 인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편이 아내나라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의 정도를 파악하는 질문

으로 '나는 아내나라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내나라 문화와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 '아내나라의 문화를 수용하려고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나라 문화를 알기 위한 노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795로 나타났다.

3)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 의사소통척도는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MCI)척도를 수정보완하여 '부부간에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다', '아내를 어떻게 배려해야 할지 잘 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잘 들으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구성하였고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와 개방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704로 나타났다.

4) 부부갈등해결

국내선행연구들을 기초로 조유리(2000)가 사용한 부부갈등척도 중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 좋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내 아내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노력한다', '아내의 성격과 사고방식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노력을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717로 나타났다.

5) 자녀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Schaefer(1965)에 의해 개발된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Matern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를 번역 수정한 이원영(1983)의 어머니 양육태도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중 애정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 태도 중 애정적 태도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안다', '좋은 부모역할에 대해 알려고 한다', '올바른 자녀양육방법에 대해 알려고 노력한다' 등으로 점수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올바른 자녀양육방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측정도구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값은 .808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비교를 위해 비모수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례수가 각 14명으로 모집단의 정규분포를 가정하기에는 사례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동질성 검증을 위해서는 Mann-Whitney U test가 사용되었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간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Wilcoxe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가 사용되었다. 이상과 같은 통계분석을 위해 SPSSWIN 12.0을 사용하였다.

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대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연구대상을 살펴보면 먼저 남편의 연령에서 30대와 40대가 주를 이룬 반면 부인연령은 20대와 30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남편과 부인의 연령차를 감지할 수 있다. 부인출신국가별로는 실험집단에서 필리핀출신 여성이 50.0%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에서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50.0%로 높게 나타났으나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종교는 실험집단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종교없음'이 8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7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졸로 나타났다. 부인학력에서도 고졸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통제집단에서는 중졸도 28.6%로 나타났다. 직업은 실험집단에서 노동직이 42.9% 통제집단에서는 농업이 50.0%로 육체노동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결혼기간은 3년 미만이, 자녀수는 2명이하가 대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자녀가 3명인 경우 재혼인 경우이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전 동질성

결혼이민여성 남편의 부부관계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 동질성 검사를 파악하기 위해 Mann-Whitney U Test를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프로그램 실시 전 점수와 두 집단간 점수차이의 유의성은 <표 8>과 같다. 실험집단에서 결혼에 대한 인식, 부부갈등 해결과 애정적 자녀양육태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통제집단은 부부갈등해결, 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다소 높게 나

<표 7>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도(%) 실험집단	빈도(%) 통제집단	변 수	구 분	빈도(%) 실험집단	빈도(%) 통제집단
남편연령	30대	3(21.4)	8(57.1)	부인연령	20대	7(50.0)	8(57.1)
	40대	10(71.4)	6(42.9)		30대	7(50.0)	6(57.1)
	50대	1(7.1)	0(0.0)				
부인 출신국가	필리핀	7(50.0)	3(21.4)	종 교	기독교	3(21.4)	0(0.0)
	베트남	4(28.6)	7(50.0)		천주교	2(14.3)	0(0.0)
	중 국	1 (7.1)	4(28.6)		불 교	1(7.1)	0(0.0)
	태 국	1(7.1)	0(0.0)		통일교	3(21.4)	2(14.3)
	몽 골	1(7.1)	0(0.0)		기 타	1(7.1)	0(0.0)
					종교 없음	4(28.6)	12(85.7)
본인학력	중졸이하	1(7.1)	0(0.0)	부인학력	중졸 이하	1(7.1)	4(28.6)
	고 졸	11(78.6)	10(71.4)		고 졸	8(57.1)	8(57.1)
	대 졸	2(14.3)	4(28.6)		대 졸	5(35.7)	2(14.3)
직 업	자영업 · 판매직	1(7.1)	5(35.7)	월평균 소득	100만 이하	2(14.3)	1(7.1)
	사무직	2(14.3)	2(14.3)		101~150만 이하	4(28.6)	9(64.3)
	농 업	3(21.4)	7(50.0)		151~200 이하	2(14.3)	4(28.6)
	서비스직	2(14.3)	0(0.0)		201~300 이하	6(42.9)	0(0.0)
	노동직(근로직)	6(42.9)	0(0.0)				
결혼기간	1년 미만	7(50.0)	8(57.1)	자녀수	0	3(21.4)	8(57.1)
	1~3년	7(50.0)	5(42.9)		1	4(28.6)	4(28.6)
					2	5(35.7)	2(14.3)
					3	2(14.3)	0(0.0)

<표 8> 집단간 사전동질성 검사

내 용	집 단	평 균	표준편차	평균순위	U값	Z값	유의도
결혼에 대한 인식	실 험	3.905	.697	10.18	37.50	-.932	.351
	통 제	4.081	.448	12.64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	실 험	3.893	.684	10.71	45.00	-.325	.745
	통 제	3.943	.378	11.57			
긍정적 의사소통	실 험	3.500	.877	10.54	42.50	-.498	.618
	통 제	3.714	.488	11.93			
부부갈등 해결	실 험	4.286	.611	11.43	43.00	-.479	.632
	통 제	4.214	.393	10.14			
애정적 자녀교육 태도	실 험	3.905	.733	11.36	44.00	-.377	.706
	통 제	3.857	.634	10.29			

타났다. 전체 평균은 3.8점대에서 3.9점대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의사소통, 부부갈등해결, 애정적 자녀교육태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점수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특성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며 동질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프로그램참가 남편의 부부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

5회에 걸친 프로그램 실시 후 사후조사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각각 프로그램 전과 후에 집단 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Wilcoxen Matched Pairs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나라문화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의사소통, 부부갈등해결, 애정적 자녀양육태도의 평균, 사전사후 점수간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실험집단에서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영역은 결혼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의사소통, 애정적 자녀교육태도, 전체로 나타났으며 아내나라문화에 대한 인식과 부부갈등해결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실험집단의 평균은 3.905였으나 프로그램 후 4.357로 증가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

<표 9> 부부관계에 대한 사전사후 변화

내 용	집 단	평균(표준편차)		Z값	유의도
		사 전	사 후		
결혼에 대한 인식	실 험	3.905(.697)	4.357(.698)	-5.037***	.000
	통 제	4.081(.448)	4.081(.448)	.000	1.000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	실 험	3.893(.684)	4.107(.720)	-1.031	.321
	통 제	3.943(.378)	3.981(448)	-.447	.655
긍정적 의사소통	실 험	3.500(.877)	3.893(.877)	-2.065*	.049
	통 제	3.714(.448)	3.714(.488)	.000	1.000
부부갈등 해결	실 험	4.286(.611)	4.357(.611)	-.520	.612
	통 제	4.214(.393)	4.143(.476)	-1.000	.317
애정적 자녀교육 태도	실 험	3.905(.733)	4.333(.733)	-2.650*	.020
	통 제	3.857(.634)	3.905(.600)	-1.000	.317

*p<.05 ***p<.001

내었다. 실험집단에 참가한 총 14명 중 점수변화추이[1]를 살펴본 결과 11명이 증가를 보여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에 있어 보다 자부심을 갖게 하고 결혼생활에서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남편들은 대부분 국제결혼에 대해 열등감을 갖고 자존감이 낮은 상태였으나 국제결혼이 현대가족의 다양한 양상 중 하나이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남편의 장점 강화를 통해 자존감향상에 대한 개입한 결과 진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내나라문화에 대한 인식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은 3.893이며 프로그램종료 후 4.107로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문화라는 개념자체가 포괄적이며 비교적 짧은 시간에 아내나라에 대한 문화를 폭넓게 알아간다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긍정적 의사소통에서는 실험집단의 평균은 3.500이며 프로그램 종료 후 3.893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른 영역에 비해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개방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실천력이 낮다고 할 수 있으나 실험집단 절반이 긍정적인 점수변화 추이[2]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혼이민자남편은 부인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하겠다. 단순하게 언어적 소통의 문제만이 아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포함하여 자신의 감정, 생각, 기대 등을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자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어렵고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부부갈등 해결에 있어서는 실험집단 평균은 4.286이며 프로그램 종료후 4.357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갈등에 대한 평균점수가 다른 영역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프로그램 종료후에도 작은 폭의 점수변화를 보여 결혼이민자남편은 갈등해결에 대한 노력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실험집단 평균은 3.905이며 프로그램 종료후 4.333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전사후 점수변화추이[3]에서도 9명이 증가순위를 보여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교육과정에서 남편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었고 국제결혼을 통해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주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이민여성은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자녀양육에 대한 혼란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채옥희 등, 2006)는 점에서 남편의 자녀양육태도교육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인의 원조와 공동양육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교육내용 전체에 대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평균이 3.898이며 프로그램종료 후 4.21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영역간의 차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사전 사후점수에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변화증가추이[4]에서도 총 10명이 점수의 증가를

1) 실험집단 14명 중 감소순위 1, 증가순위 11, 동일순위 2(Z= -2.965, p<.01)
2) 실험집단 14명 중 감소순위 3, 증가순위 7, 동일순위 4(Z= -1.971, p<.05)
3) 실험집단 14명 중 감소순위 2, 증가순위 9, 동일순위 3(Z= -2.144, p<.05)
4) 실험집단 14명 중 감소순위 3, 증가순위 10, 동일순위 0(Z= -2.387, p<.05)

<표 10>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최 소	최 대
강의 내용의 적절성	4.643	.633	3.00	5.00
앞으로 생활에 도움 정도	4.786	.426	4.00	5.00
본 교육참여를 이웃에 권유하고 싶은 정도	4.571	.646	3.00	5.00
교육기대 달성정도	4.500	.650	3.00	5.00
강의 몰입정도	4.500	.760	3.00	5.00

보여 대부분의 남편들이 부부관계 향상을 보고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화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이러한 차이는 실험집단의 남편들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고 부인과의 개방적이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보다 애정적인 자녀양육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프로그램에 전반에 대한 평가

전체적인 프로그램평가를 위해서 종결 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가를 보면 대부분 4.0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에서는 4.78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절성이 4.643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대 달성정도나 강의 몰입정도는 4.50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남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그동안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과 교육을 습득하게 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교육방식보다는 토론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공유하고 질문과 대답을 교환하도록 하는 교육방식이 유효했으며, 교육 중 자연스럽게 강사와의 상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진행하는 것도 결혼이민자 남편의 부부관계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VI. 결론 및 실천적 함의

본 연구는 기존 프로그램들이 결혼이민자에 관심을 갖는데 진일보하여 결혼이민자부부 적응을 위해 남편의 교육을 통한 변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개발된 결혼이민자남편의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이루어졌다.

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관련문헌연구를 통해 결혼이민자부부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사업실시기관 종사자, 관련공무원 등을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해 자문 및 관련연계기관의 전문가회의와 실무자 간담회 등을 거쳐 프로그램을 최종 수정하였다. 그 후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결혼이민자남편을 대상으로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남편들의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 아내나라 문화인식정도, 의사소통, 부부갈등해결, 자녀양육태도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조사를 실시하는 전후시험통제집단디자인(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실험설계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볼 때 결혼에 대한 인식, 긍정적 의사소통, 애정적 자녀양육태도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 긍정적인 의사소통, 애정적 자녀양육태도 영역에서의 부부적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내나라 문화에 대한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남편이 아내나라의 문화에 대해 알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부인이 한국문화에 더 빨리 익숙해지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작용되었거나 아내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편자신의 지속적인 관심과 문화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또한 부부갈등해결에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사전사후 검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결혼생활의 어려움에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인지하고 이러한 태도가 부부갈등해결에 더 이상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통제집단의 모든 영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실험집단 14명 중 10명이 사전사후 검사 결과 증가를 보여 프로그램의 실천적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즉 결혼이민자남편은 보다 나은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국제결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고 부부간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으며 좋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자녀양육태도를 갖게 되었다.

차후 프로그램 실시에서는 아내나라문화에 대한 인식과 부부갈등해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내실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결혼이민자남편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은 실천현장 종사자와 연구자들의 공통된 목소리였다. 그러나 실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얼마동안 어떠한 방법으로 시행해야할 지에 대해서도 자료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후속연구와 실천현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더욱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해본다.

본 연구가 갖는 실천적 함의와 제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이 노동직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소득수준 또한 낮아 한국사회에서 일명 주변부에 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부부교육이나 결혼생활교육에 대한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을 통해 남편자신의 역할과 결혼에 대한 인식, 부부관계, 자녀에 대한 태도 등의 변화는 남편자신 뿐만 아니라 부인의 한국생활에 대한 정착을 돕고 자녀를 이해하여 가족 전체의 기능강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하였으리라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프로그램들은 주로 결혼이민자에만 초점을 두어왔는데 여기서는 남편에까지 확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편들은 앞으로 교육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기를 기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계기로 결혼이민자가족 남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겠으며 현재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남편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결혼이민자의 남편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자의 범위를 확장시켜 결혼이민여성의 시부모를 위한 프로그램,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가족간 대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증진시키며 가족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결혼기간,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후속연구의 몫으로 남긴다.

둘째, 본 연구의 집단프로그램 운영은 강의, 발표, 토의활동, 상담활동 등을 통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소개하고 집단의 고민과 문제를 공유하면서 서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국제결혼생활의 장단점을 알게 되며 결혼과 부부관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일회성이 아닌 5회 기간을 거치는 동안 집단원간의 친밀성향상과 파트너쉽이 형성되었으며 결혼이민자남편 자조모임이 자연스럽게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과정은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그 가족까지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천현장에서 기대이상의 실효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추후 상담서비스의 보편화와 가족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집단이 운영되는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지속적인 참여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프로그램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확대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그러한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프로그램의 평가가 모든 영역에서 주로 높게 나타났다. 참가대상 남편들은 주로 노동직이어서 교육참여가능시간이 저녁시간이어서 퇴근 후 2시간에 걸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론적 내용전달보다는 실생활에 활용가능하고, 집중력과 흥미 및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사례제시, 역할극, 영상자료, 게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이러한 방식은 참가자들의 호응도를 높였다고 본다. 앞으로의 프로그램진행방식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활동위주의 진행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더욱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 결혼이민자남편의 교육에 대한 참여동기는 처음에는 높지 않았으나 이들의 태도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가는 동안 점점 변화되었다. 그 변화를 유도하는데 있어, 프로그램의 목적이 남편자신만이 아닌 부부와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와 프로그램 내용 대부분이 관심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전개된 것으로 사료된다. 현실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남편들이 장시간 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도전이자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었다. 결혼이민자 남편의 의식개선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렵고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기는 더욱 힘든 상황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적극적 관심과 유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수준의 지원이 주어질 때 프로그램참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그램은 특정지역 두 곳에 거주하고 있는 대상으로 실시되어 그 효과성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검사를 통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경남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2006). 경남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사례 및 발전방안.

김미숙(1987). **한국 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상임(2004). 상담사례를 통해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인권센터기념 심포지엄 학술대회자료집.**

김오남(2006a).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부부갈등 결정요인 연구. **가족과 문화, 18(3),** 63-106.

김오남(2006b).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및 학대에 관한 연구-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호,** 33-75.

김혜선 · 신양재(1988). 대학생의 결혼관 및 성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방통대 논문집, 8집,** 67-111.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 · 복지 지원정책방안.**

신경희(2004). **국제결혼가족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의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현주(2006). **한국남성과 국제결혼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경험과 대응-여성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양선화(2004). 상담사례에서 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 광주전남지역 국제 결혼한 이주여성 실태보고 및 토론회. **(사)광주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자료집.**

여성가족부(2005). 국제결혼부부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교육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2006a).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업무회의 및 워크샵.

여성가족부(2006b).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2006). 결혼이민자가족 통합프로그램.

윤연숙(2002).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이 부부의사소통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효과-국제가정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윤형숙(2004).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2004년도 한국여성학회 심포지엄 발표논문.

이규삼(1999). **국제결혼가정의 부부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금연(2003). 국내 국제결혼과 그 이해-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이은주(2007). 결혼이민여성 부부집단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에 관한 시론적 연구-필리핀 여성 부부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1),** 29-60.

이원영(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경혜(2004). **국제결혼 사례별로 나타난 가족문제에 따른 사회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전라남도(2006). **전남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복지사례조사 보고회 자료집.**

전만길(2005). **외국인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북발전연구원(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정윤정(2007). **결혼이민자가정의 특성과 아동들의 학교적응-전라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채옥희 · 홍달아기 · 김정훈 · 이남주(2006). 국제결혼가족의 가정생활 적응전략. 결혼이민자가족-다양성과 공존을 향하여 **-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45-95.

충남여성정책개발원(2003). **충남거주 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모색 워크샵 자료집.**

통계청(2005). 2005년 통계자료.

하 밍 타잉(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기혜(2000).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결혼을 통해 본 이주의 성별 정치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ienvenu, M. J.(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er, 19,* 26-31.

Durodoye, A. B.(1997). Central library expanded Academic ASAP. *Jounal of Cultural Psychology, 28(1),* 71-80.

Ibrahim, F., & Schroeder, D.(1990). Cross-cultural couples counseling : a developmental, psychoeducational intervention. *Journal of Comparrative Family Studies, 11(2),* 193-205.

Negy, C., & Snyder, D.(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exican 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American inter-ethnic couples : Issues of acculuration and clinical intervention. *Journal of Marital Therapy, 26(3),* 293-305.

NineCurt, C. J.(1984). Nonverbal communication. Cambridge. Massacgusetts: Lesley College, Evaluation, Dissemination and Assessment Center.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

havior and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3-424.
莫黎黎・賴佩玲. (2004). **臺灣社會'少子化'與外籍配偶子女的問題初探**. 社區發展. 105: 55-64.

□ 접 수 일 : 2007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01월 28일